

광주 육상 남매, 뛰고 날아 3개 대회 연속 '金'

〈김덕현·배찬미〉

제68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김, 멀리뛰기·세단뛰기 2관왕 배, 세단뛰기 금·멀리뛰기 은 인천AG 금메달 청신호

광주 육상의 자존심 김덕현과 배찬미가 올 들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성공 다가갔다.

김덕현(30)은 지난 25~27일 경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일반부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 2관왕에 올랐다.

김덕현은 멀리뛰기 결승에서 1차 시기 7m43에 이어 2차 7m66을 기록, 7m48을 뒀던 주은재(동아대)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안았다. 대회 2연패 달성이자, 최근 열린 종합선수권대회(7m79)와 KBS배육상경기대회(7m86)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김덕현은 주종목인 세단뛰기에서도 우승, 기존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는 세단뛰기 결승에서 16m61을 도약, 16m19를 뒀던 윤일(포항시청)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지난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경기 중 왼쪽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심한 부상으로 그동안 주종목인 세단뛰기에 나서지 못했다. 세단뛰기는 도약과정에서 발목의 힘이 풀리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했다.

배찬미(여·24)도 세단뛰기에서 정상에 올라 최근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배찬미는 여자 세단뛰기 결승에서 13m57을 기록, 13m13을 뒀던 박민희(23·정선군청)를 앞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찬미는 앞서 종합선수권대회(13m65)와 KBS배육상경기대회(13m24)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배찬미는 멀리뛰기에서 6m16을 뛰었지만, 6m19의 정순옥(인천시청)에 밀려 은메달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해머던지기 결승에서는 박영식이 66m93을 던졌지만, 이윤철(대전시청, 68m60)에 밀려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삼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최근 열린 3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는 등 김덕현과 배찬미가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며 "김덕현의 아시안게임 2연패 달성도 배찬미의 인천 아시안게임 정상 등극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청 '육상 남매' 김덕현과 배찬미가 각각 종합선수권대회와 KBS배육상대회 세단뛰기에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대한육상연맹 제공〉

이용대 3주 연속 '金金金'

호주오픈 남자복식 정상

고성현·김하나 혼합복식 우승

화순 출신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삼성전기·사진 왼쪽)가 국제대회 3주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2위인 이용대-유연성은 2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14 호주오픈 슈퍼시리즈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리성무-짜이자신(대만·세계랭킹 6위)을 (21-14 21-18)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용대-유연성은 최근 일본오픈 슈퍼시리즈, 인도네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에 이어 3개 대회에서 잇달아 금메달을 획득, 정상급 기량을 과시했다.

이들은 이용대가 약물검사 절차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철회된 이후 출전한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금빛 스매싱'을 이어가면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도 높였다.

1세트 초반부터 리드를 잡은 이용대-유연성은 끈질긴 수비에 이어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공격 전략이 적중하면서 15-7까지 격차를 벌였고, 리드를 빼앗기지 않은 채 21-14로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

2세트에서는 7-4부터 2~3점 차 리드를 이어가다가 강한 공격으로 밀어붙이는 리성무-짜이자신에게 16-16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이후 3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혼합복식의 고성현(국군체육부대)-김하나(삼성전기)도 미하일 폭스-브리짓트 미헬스(독일·세계랭킹 9위)를 2-0(21-16 21-17)으로 꺾고 우승했다.

세계랭킹 6위인 고성현-김하나는 지난해 4월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배 보치아선수권대회 성료...장애인 화합의 장 마련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인 제2회 하이트진로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29일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BC3종목에 출전한 정호원(속초장애인체육회)이 공을 굴릴 라인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2회 하이트진로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하이트진로와 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40여명의 선수와 임원, 보호자가 참가해 호남대 광산캠퍼스에서 사흘간(27~29일) 열전을 펼쳤다.

대회 결과, 속초시장애인체육회가 2관왕을 차지했다.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정호원은 BC3(혼용 사용)에서, 서현석은 BC4(상지 사용) 경기에서 우승했다.

BC1(1등급 상지·2등급 하지 사용) 경기에서는 유원중(전남보치아연맹)이, BC2(2등급 상지 사용)에서는 손정민(경기도보

치아연맹)이 정상에 올랐다.

보치아 경기는 그리스의 공던지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링과 유사하다. 규정은 뇌성마비 1·2등급의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해 경기를 펼치는 것이지만, 중증이 아닌 뇌성마비 장애인과 노인들의 동계스포츠와 정신지체 놀이 프로그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성동용 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은 "이 대회는 장애인 스포츠인 보치아를 널리 알리고 선수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열렸다"며 "선수와 보호자 340여명이 광주를 찾아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톱타자 복귀 추신수 멀티히트 행진

28일 3안타·29일 2안타 맹타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톱타자로 복귀하고 나서 2경기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때리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2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쳤다.

팀 사정상 3번 타수에 배치됐다가 21일 만인 전날 다시 톱타자로 나서 3안타를 터뜨리고 팀의 8연패 탈출에 앞장섰던 추신수는 이를 연속 멀티히트를 달성했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2안타 이상 기록한 것은 올 시즌 19번째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51에서 0.255(267타수 68안타)로 올랐다. 출루율도 0.372에서 0.374로 약간 높아졌다. 텍사스는 미네소타를 5-0으로 누르고 8연패 뒤 2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류현진 내달 3일 10승 재도전

클리블랜드전 선발 출전 예고

후투에도 승리가 아닌 패배를 떠안아야 했던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내달 3일(이하 한국시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시즌 10승째에 다시 도전한다.

다저스 구단은 29일 홈페이지에 내달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3위 클리블랜드와 치를 미국프로야구 홈 3연전의 선발 투수를 예고했다.

류현진은 로테이션대로 맨 해런, 조시 베켓에 이어 내달 3일 오전 4시10분부터 열린 3연전의 마지막 경기에 등판한다.

류현진은 올 시즌 15경기에서 마운드에 올라 9승 4패, 평균자책점 3.12를 기록 중이다.

류현진은 나흘을 쉬고 다시 10승 사냥에 나선다.

아쉽게 10승 기회가 미뤄졌지만 메이

저리그 2년차인 류현진이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승리하면 지난해보다 5경기나 앞당겨 두자릿수 승리를 채우게 된다. 류현진은 지난해 21번째 등판이었던 8월 3일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정규시즌에서 류현진이 클리블랜드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경기에서만 메이저리그 데뷔를 앞둔 지난해 3월 7일 한 차례 대결해 3이닝 동안 3안타와 볼넷 하나를 내주고 삼진 5개를 곁들여 2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클리블랜드와 경기는 현지시간으로 낮 12시 10분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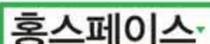
류현진은 올 시즌 낮 경기에는 6차례 등판해 4승 2패, 평균자책점 4.06의 성적을 냈다. 7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62를 기록한 야간경기 때와 승패는 비슷하지만 평균자책점은 높았다.

연합뉴스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신 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 1899-0240